

【지방 차원 교류의 힘】

안녕하십니까.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달 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전국 도시문제 회의 (약 1,800 명)」 「한중일 3 개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약 500 명)」 「간호보험 추진 전국 서밋 (약 1,200 명)」의 시 주최로 3 개의 대규모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세 개의 회의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든 참가자 분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지만,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약 220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한중일 3 개국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는, 오카야마가 자랑하는 일본 3 대 정원중 하나인 오카야마 고라쿠엔과 오카야마 성을 라이트 업 한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식 및 환영 리셉션을 개최한 것에 대해 경이로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참가자 분들이 라이트 업된 성과 정원을 한 번에 바라 볼 수있는 경치에 눈을 빼앗기고 일본의 정취에 감탄한 모습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 중국 우호 협회 비서장인 엔 빈도씨가 「오늘 참가한 사람은 아마 평생 오카야마를 잊지 못할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며, 기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본회의에서는 「지방 정부 교류에 의한 동북아 지역의 활성화」를 메인 테마로, 각국의 대표자 등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강연이 있어 저도 오카야마의 매력과 ESD의 추진 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때론 논의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저도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이번 같은 지방 차원의 교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국경을 넘은 사람과 사람과의 고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문화의 고리, 경제의 고리로 이어져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화자찬이 되겠지만 일련의 회의를 통해 오카야마시 직원의 회의 수행 능력의 뛰어남을 발견한 것은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회의 개최있어서 많은 힘을 쏟으신 강사와 자원 봉사자,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